

## 李鳳瑞動資部長官 韓國電力 業務計劃 보고받아

李鳳瑞動力資源部長官은 지난 1月 31日 韓國電力을 年頭巡視하고 1989年度 業務計劃을 보고 받았다.

이날 安秉華社長은 업무보고에 앞서 人事말을 통해 “電力事業이 國民의 企業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共益性和 企業性的의 조화는 물론 原電의 安全性和 電源立地 확보등 모든 현안문제를 國民의 동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金允執기획본부장은 業務報告에서 國民株普及方針과 관련하여 1,110億원의 株式을 올해안에 國民주로 보급하는등 납입자본금의 32%



에 해당하는 9,733億원의 株式을 公開할 方針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國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新규전기수용가가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금을 中전의 64%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01年까지는 38基의 發電所를 건설하기 위해 300여건의 지역협력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電氣料金 納付方法을 은행납부제로 바꾸어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는데 李鳳瑞장관은 업무보고를 받은뒤 훈시를 통해 최소한 예비율을 25%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

력발전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고개지향적인 사고로 서비스定着을 위한 電力人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리고 原電安全性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전향적인 弘報技法開發로 일한만큼 평가를 받도록 公보업무 강화를 당부했다.

## 民營鑛業體에 685億支援 鑛業振興公社 業務計劃

大韓鑛業振興公社는 올해 모두 685億원의 鑛業資金을 民營鑛業體에 용자 지원할 방침이다. 尹承植 大韓鑛振社長은 지난 2月 3日 李鳳瑞動資部長官에게 1989年度 主要業務報告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용자지원하는 685億 가운데 432億은 石炭鑛에 지원하고 나머지 253億원은 일반광산에 지원하며, 석탄광 시설자금은 용자조건도 年利10%에서 6.5%로 引下조정하여 石炭鑛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重石·몰리브덴·코발트 등 첨단산업소재 자원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 가스公社 供給地域擴大 中部圈에도 天然가스 供給

올해부터 92년까지 大田, 天安, 溫陽, 鳥致院, 淸州, 平澤, 烏山, 松炭등 中부권 주요도시에 천연가스가 공급된다.

韓國가스公社 文熙晟 사장은 지난 1月 30日 李鳳瑞 動資部長官에 대한 198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LNG냉열을 이용한 냉열발전소(2천9백40kw급)를 1991년까지 1백9억원을 들여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스공사는 또 환경규제 고시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위성도시로 확대하고 규제대상도 中전 업무용 건물의 경우 보일러용량 2톤이상에서 1톤으로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용건물외에도 산업체와 아파트단지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동자부와 환경청에 건의했다.

환경규제 고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난방연료로 병커C油를 사용하지 못하고 LNG사용이 의무화된다.

## 無煙炭生産 526萬噸 大韓石炭公社 業務報告

大韓石炭公社는 금년중 526萬噸의 無煙炭을 생산할 계획이다. 大韓石炭公社 安弼濬 社長은 지난 2月 10日 李鳳瑞동자부장관에게 1989年度 主要業務計劃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炭質은 지난해 수준보다 28Kcal낮은 1Kg당 4,800 Kcal로 하향조정 高質炭 판매부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石公은 또한 無煙炭 소비 감소때문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道溪鑛業所 수갱시설 건설사업을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 에너지節約弘報展示館 技術相談實施 成果增大

에너지管理公團 서울支部에서 지난 1984년부터 光化門, 淸涼里, 東大門지역에 에너지節約 常設弘報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홍보관에는 각종 열사용 기자재를 전시하고 에너지節約에 대한 技術相談을 무료로 실시 지난 '88年中에 8萬2,000여명이 관람 하였으며 이중 22%인 1萬8,000여명이 기술상담을 하였다. 특히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기름보일러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保溫 및 住宅 斷熱에 대한 상담이 전체의 15%이며 전기제품상담 14%등 에너지 절약의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核燃料 成型加工 공장완공 1990년부터 全量供給가능

輕水爐型 原子力發電所의 核燃料를 國産化하기 위한 成型加工 工場이 完工,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重水爐用 핵연료의 國産화작업이 지난해 7월에 완료된데 이어 이번에 경수로용 핵연료 성형가공 工場이 완공되어 核燃料 國産화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韓國核燃料(株) (대표 韓弼濬)는 지난 1986년 11월 成型加工工場에 착공, 외자 4,000萬마르크를 포함 총 680億원을 투입 최근 大田工場을 완공하였다.

수직압력용기형 핵연료(우라늄 집합체)를 年間 200톤씩 생산할 수 있는 이 工場은 시운전을 마치고 古里原子力 2호기용으로 우라늄 집합체 42다발(약 20톤)의 생산에 들어가 1989年 6월에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이 工場은 나머지 原電의 핵연료 공급일정에 따라 가동률을 높여 오는 1990年初부터는 國內 수요 전량(年間 2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輕水爐 核燃料의 國産화사업은 당초 합작을 통해 수행키로 했던 것을 지난 1984년에 계획을 변경 西獨의 KWU社로 부터 초기단계의 기술만 도입해서 그간 韓國에너지研究所가 核燃料 設計부분을, 韓國核燃料(株)가 核燃料 製造부분을 각각 맡아 추진해왔다. 이과정에서 韓國에너지研究所는 핵연료 설계기술 이전에 큰 성과를 거두어 1989年 10월부터는 완전 자력 설계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되었으며, 韓國核燃料(株)는 소결체 제조설비등 64종의 설비, 부품 國産화 및 재료가공, 용접 전자등 분야의 첨단기술 축적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韓國核燃料(株)는 경수로용 핵연료 國産화 사업 범위중 남은 재변환공장(기체상태의 우라늄을 분말로 변환)을 건설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재변환공장은 총 70여億원을 들여 순수 國內기술로 설계 건설할 계획으로 이 工場이 완공되면 우라늄 분말 전량이 國産화 되어, 이번 성형가공공장 완공과 함께 核燃料를 전량 수입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浦鐵 粗鋼生産 1億屯 世界頂上の競爭力 確保

浦項製鐵은 1973年 浦項製鐵所 1期設備 竣工以後 15年 7個月만인 1月 27日 粗鋼生産 累計 1億屯을 達成했다.

粗鋼 1億屯은 製品別 生産 可能量으로 換算해 보면 경운기 1億3,400萬台, 냉장고 22億7,300萬台, 소형승용차 1億600萬台分에 該當되며, 1,200 Km의 교량을 建設할 수 있는 物量이다.

浦項製鐵은 粗鋼生産 累計 1億屯을 達成하기까지 總 8,904萬屯에 이르는 製品을 販賣하여 20兆4,103億원의 賣出額을 記錄했으며, 여기에서 나온 利益金으로 浦項 및 光陽의 製鐵所 擴張工事に 投資함으로써 世界頂上の 競爭力 確保에 成功했다.



國內 粗鋼生産量은 浦項製鐵 設立以前인 1960年代만 해도 年間 40萬屯程度에 不過해 工業化 進전에 따른 鐵鋼材 需要에 絶대적으로 不足했으나 浦項製鐵所 1期設備 竣工以後 生産量은 급격히 늘어나 1981년에는 1,075萬屯, 1988년에는 1968年의 33倍에 이르는 1,308萬屯을 記錄했다.

浦項製鐵은 浦項製鐵所 1期設備 竣工以後 10年 10個月만인 '84年 5月 粗鋼生産 累計 5千萬屯을 記錄했으며, 以後 光陽製鐵所 1, 2期 設備를 竣工하여 鐵鋼材 供給難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11月에는 年間 270萬屯 生産能力을 追加하는 光陽製鐵所 3期 設備를 着工, 이 設備가 竣工되는 '91년에는 國內 鐵鋼自給도가 크게 改善될 展望이다.

## 基礎電力 工學共同研究所 起工式 盛大히 舉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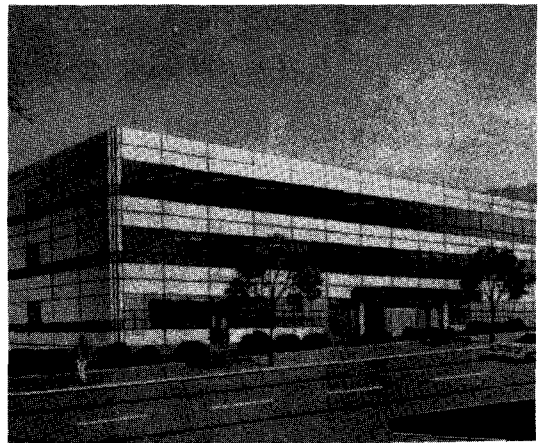
정부와 韓國電力은 지난 1988年 4月 19日 電力 및 에너지 技術의 先進化를 達成하기 爲하여 基礎電力 工學共同研究所를 設立하고 産學의 研究活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3月 7日 오전 李鳳瑞 動資部長官, 安秉華 韓電社長 등 에너지界 人士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관악캠퍼스내에 研究所建物 起工式을 盛大히 거행하였다.

이 研究所는 各 大學 大學院 教育과 研究에 필요한 研究設備를 갖춘 研究所로써 各 大學이 共同으로 活用케 함으로써 電力技術과 관련된 高級 연구 인력 배출과 基礎電力工學分野의 研究結果를 산업 界에 提供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産·學·研이 協議하여 設立된 研究所이다.

서울대학 構內에 建設은 하지만 各 大學의 기존 研究所와는 獨立된 財團法人 형태의 연구소로서 韓國 各 大學이 共同으로 同等하게 活用한다는 點이 그 特徵이다.

이 研究所는 '90년까지 完工을 目標로하고 있으며 총80億원의 財源이 所要되고 韓電이 전액 부담 하도록 되어 있다.



## 精油社 競爭戰略會議 參加 油公, 極東精油

當協會는 싱가포르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search 주최 「精油社를 위한 (自由)競爭戰略에 관한 第2次 아시아·太平洋會議」 개최를 유관 기관에 통보한 바, (株)油公의 조원천 상무이사(석유사업기획담당), 강용수 부장(석유사업부)과 極東精油(株)의 이창호 대리(국제부 제품과)가 2. 27~2. 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精油社를 위한 資本投資, 供給計劃, 原油去來와 利用에 대한 최근의 經營展望과 最新技術을 다룬 同 회의에 참가하였다.

### 油公 日本千代田社와 脫硫黃施設技術用役契約

주식회사 油公은 지난 2월 8일 日本 千代田社와 증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건설에 필요한 技術用役契約를 체결하였다. 이 건설사업에는 총 2,965億 원의 投資費가 소요되는데 1992年 中半期에 시설이 완공되면 경질유·증질유 및 高硫黃, 低硫黃 제품의 수급조정, 原油購入 선택범위의 확대, 시설상의 경쟁력우위 확보 등 다양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千代田社는 이번 공사에서 基本設計를 맡게되며 관련 상세설계와 施工은 油公技術陣과 국내 엔지니어링社 및 建設業體가 수행하게 된다.



또한 2월 15일에는 퍼슨스 퍼시픽社와 휘발유 제조시설 및 정유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엔지니어링

用役契約를 체결했다. 이날 調印式에는 油公 金恒德社長 퍼슨스 퍼시픽社의 목정권社長, 더랄프M 퍼슨스社의 윌리엄 E 레온하드會長이 참석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技術用役契約는 美國의 더랄프M 퍼슨스社의 보증하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업의 國內 用役業體는 (株)鮮京建設이 선정되었다.

### 原電 안전관리대책 적극추진 韓電 情報공개 적극화

한전은 원자력 安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위해 原電情報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安全管理對策을 적극 推進할 計劃이다. 2월 25일 韓電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原電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국민정보미비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하에 原電情報의 공개 PA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韓電은 각종 세미나를 비롯 公開討論會를 개최하고 地域住民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높이는 한편 폭넓은 복지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늘어나는 방사성 폐기물의 效率的 管理를 위해 韓電敷地內 폐기물저장고를 增築할 計劃이며, 기존저장시설운영 및 폐기물 처리처분의 管理도 강화한다.

韓電은 또 방사성 폐기물이 과실로 流出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관련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고 放射線安全管理 技術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放射線 관리 강화대책을 위해서는 주변환경 모니터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불만요소들을 사전에 파악 과감히 개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한전은 특히 올해에는 原子力 發電所 安全診斷을 한층 더 강화하고, 運轉中인 8基의 發電所 自體檢査는 물론 건설중인 발전소도 政府 또는 國內의 專門機關에 의한 安全點檢도 철저히 받을 계획이다.